

퇴직자 수칙 제정으로 청렴도 높인다

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 불필요한 접촉·모임 알선 등 금지

전북도교육청이 퇴직자의 로비, 전관 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후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긍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퇴직공무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청탁·알선 행위, 용역·계약사항에 대한 개인 행위 및 법인·단체로의 재정 지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청탁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인허가, 계약 등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과 과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직 공직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및 모임 알선도 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가 22일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하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농촌봉사 통해 따미의 소중함 배워올게요"

전북대 학생들, 장수서 일손 도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학생들이 하절기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22일 오전 10시 전대학술문화회관에서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과 이용규 총동창회장, 농활에 참여하는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전북대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가 주관하는 올해 농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모두 180여 명이다. 이들은 장수군 일원에서 일주일 동

안 마을 환경 정리와 작물 수확 등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돕는다.

김동원 총장도 23일 오후 5시 장수군을 찾아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 격려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동원 총장은 "좋은 일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실천해서 실현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아픔을 모두 치유할 수 없겠지만,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따미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농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중소벤처 경제사절단이 지난 18일 진행된 '2019년 월드옥타 CIS-유럽 경제인대회 무역상담회'에 참가해 수출계약을 성사했다.

전북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 확인

전북중소벤처 경제사절단, 유럽 경제인대회 무역상담회서 수출계약 성사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주송)과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인호)가 결성한 '전북중소벤처 경제사절단'이 지난 18일 진행된 '2019년 월드옥타 CIS-유럽 경제인대회 무역상담회'에 참가해 수출계약을 성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키르기스스탄 공식방문 경제사절단으로 전북도에서는 28개 중소벤처기업이 참가했다.

전북중소벤처 경제사절단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키르기스스탄 총리가 함께 참석한 한-키르기스스탄 비즈니스포럼과 월드옥타 경제인대회

무역상담회 등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6박 7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를 순방하며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했다. 특히, 'CIS-유럽 경제인대회 무역상담회'에서 전북의 18개 벤처기업이 미국 및 유럽, CIS 지역과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는 전국 벤처기업의 성사 건수 36건의 과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수출계약 성과로는 (주)솔라시도 코리아(윤창복 대표)와 현지 바이어 생산트레이드 간의 태양광 패널 공급 100만 달러 수출 계약, 군산의 (주)아리울수산(박금옥 대표)이 미국의 J-

Vision USA와 수산물 공급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정식미림(김용현 대표)은 월드옥타 5통상위원회(조진만 위원장)와 도로 및 기타 화학제품을 공동 구매하기로 했다.

월드옥타 5통상위원회는 건설자재 및 장비를 취급하는 통상위원회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건설 부문의 한인 기업인에게 도로 및 기타 화학제품을 공급하는 공동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외에도 한지와 압화를 이용한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주)꽃지담(신재승 대표)은 프랑크푸르트 면세점 입점 계약을 성사시켰고, 노인복지용구를 생산하는 (주)해울(기해림 대표)과 남원의 전통주 메이커인 (주)술소리(양해준 대표)는 영국과 폴란드 옥타 회원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무역상담회를 주관한 월드옥타 비슈케크지회 오상택 지회장은 "전북 벤처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많은 수출 실적을 올리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했다"라며, "전라북도의 제품의 높은 상품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전북벤처기업 경제사절단은 CIS와 유럽 시장에 전북지역 상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향후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상품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기도 했다.

전주대 LINC+사업단장 주송 교수는 "이번 행사로 그동안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와 지속해서 추진해 왔던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키르기스스탄에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구축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주송)은 지난 20일 월드옥타 비슈케크 지회(지회장 오상택)와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비슈케크지회 사무

실에서 해치비슈케크(HATCH Bishkek) 현판식을 가졌다.

전주대는 월드옥타 지회와 다양한 글로벌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를 설치

하고 공동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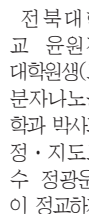
이번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설치된 센터는 영국 런던지회와, 터키 이스탄불지회에 이은 3번째 거점센터로 학생과 기업들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글로벌 산학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윤원진 대학원생 영국 왕립화학회지 논문 게재

정교하게 분자 자동 배향하는 최신 기술 연구 차세대 디스플레이, 광학필름 등에 적용 가능



전북대학교 윤원진 대학원생(공학과 박사과정·지도교수 정광운)이 정교하게 분자를 자동 배향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담은 연구 논문을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했다.

윤 씨의 이번 논문은 소재 분야 저명 학술지인 영국 왕립화학회지(Royal Society of Chemistry)의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IF=6.641)' 7월 표지논문으로 게재됐다.

지난 2017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세계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글로벌 박



사 펠로우십'에 선정된 바 있는 윤 씨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광학필름 등에 적용 가능한 정교하게 분자를 자동으로 배향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Macromolecules(2016년)과 Small(2018년)을 포함하여 1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미국공군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관련 연구를 미국공군연구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윤원진 대학원생은 "이번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액정분자 배향의 최신 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차세대 디스플레이나 광학필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